

# 검찰, 효성 해외부동산 확인 착수

자금출처 · 조달경로 포함 다각적 조사 ... 비자금 수사와는 무관

검찰이 효성 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효성 일가의 미국 내 부동산 보유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다각적인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미교포 블로거 안치용씨는 인터넷사이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이 2004년 12월24일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콘도 1채를 180만달러에 매입했으며, 3개월 후 이를 효성 아메리카 관련법인에 무상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조현준 사장은 2002년 8월 로스앤젤레스(LA) 주택 1채(480만달러 상당)와 2006년 10월 샌디에고 빌라 2채 지분(각 47만5000달러 상당)을, 조석래 회장의 3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는 2008년 7월 하와이의 콘도(262만3000달러)를 각각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출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해당 부동산의 보유 여부가 사실인지 살펴보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확인된 부분도 있다”며 “다만 해당 부동산이 미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효성가의 미국 부동산 보유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자금출처나 조달경로 등에 대한 확인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부동산 구입 자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됐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면 국세청 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도 따져보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확인 작업이 이미 내사 종결된 효성의 비자금 수사와는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소유권 관계와 자금출처를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다시 살펴 보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6>